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충지중보

2009년 5월 31일(일)

음력 4월 9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서진입(원승)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3년 제114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시고 열반에 드신지 250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적 충족만을 우선시하고 마음 가꾸기는 가볍게 여긴 결과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령 효강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온갖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내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여 탐진치생들을 항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 나갈 때에 행복으로 가득 찬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동체대비심으로 불국정토 이뤄야”

과학과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아직도 불행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이 결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리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봐야 불행은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백만대군을 격파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 봅시다.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오늘 사월초파일은 인 천의 위대한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맑은 소리로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년 전 미혹과 고통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들의 불성을 일깨워 주시길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



총무원장 원송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등을 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등을 켜면 부처님의 진리가 나에게 감응되어 생각이 변하고 행복해 지고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나

“마음의 등, 지성의 등 밝혀야”

‘부처님 오신날’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은 오시거나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로서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와 산천초목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처럼 밝고 맑은 본래 부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래 마음을 밝히려면 수행과 기도를 통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등, 지성의 등을 밝혀야 합니다.

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모습인 불이(不二)와 연기(緣起)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연기의 진리를 실천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의미를 잘 새겨서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하루하루가 근심걱정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날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봉행



4월 2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법회가 5월 2일 서울 충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봉축법어에서 “사회가 혼탁하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 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빛을 발할 때”라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 나갈 때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 총무원장은 봉축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 진리 그 자체이며, 이런 본래 마음을 밝히려는 수행과 기도를 통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등, 지성의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불공 후엔 찬불가 합창, 가요 공연, 자성학교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행

사가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4월 26일 열린 연등축제는 내 외국인 30여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어울림마당은 오후 2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연등축제를 필두로 주요 사찰과 신원단체들이 등장해 대형 장엄등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와함께 연등법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충지종 원승 총리원장 등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이어졌다.

제행진에서 충지종 스승과 교도를 비롯한 불자들이 형형색색의 연등을 들고 동국대학교에서 동대문,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설한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손 모아 발원했다.

- 윤우재 기자 <관련기사 12면>

제73회 춘계 강공회 회향

“종단 발전방안 수립”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총리원에서 개최된 제73회 춘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했다.

강공회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만물이 생장하고 약동하는 봄은 어두움이 없는 만다라 세상 그 자체”라며 “우리 안의 부처님 참모습도 봄과 같이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모든 어려움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자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생동하고 희망에 넘치는 모습으로 교화에 임하라”고 말했다.

원승 총리원장은 “종단의 여러 승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단발전 방안을 숙의하는 소중한 자리에 모두 합심하여 성공적 강공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춘계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종단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 발전방안을 강구했다.

강공회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복지재단,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과년도 총리원, 전담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 선출, 감사선출,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복지재단 회의에선 결산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이사 건, 등의 토의가 열렸다.

중앙종의회에선 과년도 총리원, 전담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종단 산하 각 기구 임원의 선출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또 승단총회에선 각 기구 임원 선출과 종단현안문제 등을 논의했다.

종단은 이번 강공회에서 협의된 종단운영 발전 방안을 활용해 거시적 종단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조법설

무아(無我)는 연기(緣起),

중중제망(重重帝網)

밀교의 무아(無我)란 현상(現象)을 인정하는 주장(主張)에서 무아가 자기의 존재는 무엇인가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타(他)의 존재도 무엇인가가치를 부여하는 세계이다. 이것을 연기(緣起)의 세계(世界)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 한다.



서울 충지사(주교: 선도원, 회장: 만덕장 보살)는 지난 4월 12일 동적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충지사는 매년 상반기 진호국가 49일불공 회향 불사의 일환으로 현충원 참배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충기38(불기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진언밀교 충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총리원장 원송

중앙종회의회장 대원사감원장지성교육원장화령

총무부장 경원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선도원	사회부장 인선
서울경인 교구장 시정	부산경남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 교구장 지성
총무록 정	총무우 인	총무안 성	총무승 원
서울경인 지회장 김은숙	부산경남 지회장 신인록	대구경북 지회장 권오남	충청전라 지회장 민순분



불교충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사 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5월 2일은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이다. 그 어느 해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각별하게 느껴진다. 사바세계의 일상이 늘 그러하기는 하지만 유독 금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곳곳에 신음소리가 크고 있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이웃은 갈수록 늘어나고 경제적 빈곤과 심각한 실업난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빈부 격차와 사회의 양극화,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고통이 새삼 피부로 와닿는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의미를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석존께서 룸비니 동산의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시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바른 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탄생개(誕生偈)를 말씀하셨다. 오로지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며,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모두가 존귀하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배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존중'이다. 그 가르침이 석존의 탄생과 계승에 담겨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주제 표어가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다.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실사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 무재칠사(無財七施)를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많다. 돈과 물질만이 남을 돕는 길이 아니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남을 돕지 못한다. 남을 돕거나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 발심(發心)이 중요하다. 마음을 내는 것이 남을 돕는 첫 마음이자 봉사의 첫 걸음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탄생에서 설해지듯이 나와 남을 함께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자존감(自尊心)은 나의 정신과 마음을 살찌게 할뿐 아니라 남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승화된다.

이와같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존감과 이타심(利他心)이 넘쳐 나고 함께 공존할 때 사회는 좀더 밝아질 수 있다. 불국토 건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작은 것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은 먼을 이루게 되는 이치다.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의 선행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선행을 가해야 해서도, 아껴서도 안된다. 결집없이 거침없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온세상에 불을 밝히는 연등을 일컬어 우리는 '자비의 등' '지혜의 등' '광명의 등' '진리의 등'이라고 한다. 자비의 등은 불을 밝혀서 환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밝히는 등불이 진정 자비스런 연등이다. 형상의 연등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다. 지혜와 진리의 등불이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일컫는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빛으로 삼아 내 앞길을 비추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비틀거리지 않고 옆 길로 빠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다.

진리의 빛은 바로 깨달음의 빛이다. '삼구보리 화화중생'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오신날의 또다른 가르침이다. 일체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를 뛰어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이다.

기획연재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⑪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법의(法衣)와 도량(道場)의 변천”(下)

지난 호에 이어 '법의와 도량의 변천', 그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호에서 <법의의 유래와 변천사, 도량 명칭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법의와 금가사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법의와 금가사의 상징과 의미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령(宗領)의 법의와 금가사는 황금색 법의와 홍색 금가사를 취하고 있다. 황금색은 밀교의 중심 오불(五佛) 가운데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색상이다.

따라서 오색(五色)의 중심인 황금색은 바로 종단의 제일 어른이신 종령(宗領)을 상징하고 있다. 황색이 가장 길(吉)한 색이라고『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언급하고 있다. 홍가사(紅袈裟)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색으로 고승대덕들이 주로 취하였던 가사색이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총지종의 최고 어른인 종령님의 금가사를 홍색 금가사로 한 것이다.

일반 스승님들의 법의는 자색(紫色), 금가사는 황금색이다. 자색 법의는 우리 종단의 소의경전인『대승장엄보왕경』의 서두에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천식재 삼장이 중국 송나라 태종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색 법의를 하사받았던 사실'에 근거하여 총지종단의 스승님들의 법의를 자색으로 한 것이다. 총지종이 밀교종단으로서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삼고 있는바,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대승장엄보왕경』의 역사에 기반을 두는 것은 의미있는 사상(事相)이자 당연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금가사의 경우 일반 스승은 황금색 금가사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로자나불의 중심색인 황금색을 일반 스승님의 경우에는 종령과 달리 금가사에 황금색을 넣었다. 종령의 경우에는 이와달리 법의를 황금색으로 정하였다.

다음은, 금가사의 양식이다. 금가사 끝 부분에 넓은 요대를 붙여 복부를 가리도록 하였다. 요대 아래에 '수다라'라고 하는 연꽃 매듭과 수술을 달았다. 금가사의 목 뒷부분에는 종단의 표상(表象)인 육합상(六合相)을, 가슴 양쪽의 금가사에는 각각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법자를 넣었다. 왼쪽 금가사에 대장계의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아'자를 넣었고, 오른쪽에 금강계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밤'자를 넣었다.

대일여래의 법자를 포자(布字)하는 의미는 밀교수행승인 아사리(스승)은 곧 진언행자들의 공경 대상인 삼보인 동시에 중생들을 제도하는 전법자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장계 금강계 대일여래의 종자를 새겨 넣으므로 총지종의 승직자는 바로 양부 만다라를 공히 지니고 있으므로, 스승님들의 법체(法體)는 곧 만다라요, 만다라를 지니므로써 설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곧 법신불의 당체설법임을 상징하고



▲ 사색법의(四色法衣) 초창기에는 사중법에 따라 법의를 사색으로 마련하였다. 오른쪽부터 식재법의 백색법의, 증익법의 황색법의, 경애법의 자색법의, 항복법의 흑색법의이다. '원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종자는 우리 종단의 사중수법에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언종자이기도 하다. '아'자는 증익법에 쓰이는 종자이고, '밤'자는 식재법의 '바'와 일맥상통하는 종자이다.

금가사의 가슴 아래부분에는 요대를 달고, 그 위에 육합상의 모양을 수놓았다. 육합상은 이미 종조님께서 창안한 것으로, 우리 종단의 중요한 사상(事相) 가운데 하나이다. 총지종을 상징하는 표식이므로 육합상을 승직자의 금가사에 새겨 넣은 것이다.

육합상의 원 안에 '남'자를 새겨 놓았다. 종단의 중요한 의례 가운데 하나가 '남'자관이고 대삼매인(大三昧印)을 결하면 바로 단전에 두 손이 놓여지기 때문에 '남'자를 새겨 넣은 것이다.

특히 '남'자에 대해서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범서(梵書) '남'자를 파자하면, 위의 둥근 모양(사실 이것은 원이 아니라 점이다)은 '대일여래', 종간의 획은 '중생', 아래 받침의 '라'자는 '명왕'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남'자

를 새겨 넣은 것은 이러한 의미와 상징들을 담아 넣기 위한 것이다. '남'자를 비롯하여 금가사에 새겨져 있는 '아', '밤' 등의 진언 법자는 모두 적색(赤色)으로 되어 있다.

그 근거는 역시『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두고 있다. 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중수법(四種修法)과 준제진언이『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삼각화륜(三角火輪)으로 변화시키고 정수리에서 발에

(三密)을 상징한다. 삼밀이란 신구의(身口意)를 뜻하는 것으로, 법의를 걸친 자는 마땅히 '입으로 손으로 인을 결하고 진언을 외우고 뜻으로 관을 행하여 수행할 것이요, 생활 가운데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다.

법의 양쪽 옆에는 각각 3줄씩 총6개의 주름을 넣었다. 이 여섯 개의 주름은 밀교의 중심교리인 육대사상(六大思想)을 상징한다. 우주법계가 육대(六)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육대사상이다. 그 육대란 지·수·화·풍·공·식(地水火風空識)을 말한다. 일체 만물의 구성요소가 이 여섯가지이다.

등 뒤에는 종(縱)으로 4개의 주름을 넣었다. 이것은 네 가지의 만다라, 즉 사만다라(四曼荼羅)를 의미한다. 줄여서 사만(四曼)이라고 한다. 이 사만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모습을 네 가지의 만다라로 표현한 것으로, 대만다라·법만다라·삼매아만다라·갈마만다라를 말한다. 이 사만을 네 개의 주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의가 곧 비로자나의 모습이고, 만다라인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총지종의 법의(法衣)는 바로 '밀교의 삼대사상(三大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삼대사상이란 비로자나부처님을 체·상·용(體相用)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본질인 '체(體)', 비로자나부처님의 모습인 '상(相)', 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작용인 '용(用)'을 말한다. 이 삼대(三大)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체(體)는 육대(六)로 이루어져 있고, 상(相)은 사만(四曼)으로 표현되며, 용(用)은 삼밀(三密)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교의 삼대사상(三大思想)에 바탕을 둔 총지종의 법의(法衣)는 바로 밀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 khbbud@paran.com)

〈그 동안 총11회에 걸쳐서 연재해 왔던 『교사를 통해 본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은 이번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진행된 줄고(拙稿)의 연재에 사부대중의 질책과 깊은 애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해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아울러 밀교연구소에서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과 밀교종단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 연구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성도합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9년 4월 1부터 4월 29일 까지

개천사	이희권	4. 24	10,000
개천사	경 원	4. 27	10,000
개천사	무명찌	4. 28	5,000
관성사	해 정	4. 27	10,000
관성사	정법계	4. 27	10,000
관성사	황성녀	4. 28	10,000
관성사	현정원	4. 28	50,000
관성사	박현숙	4. 28	10,000
관성사	이혜원	4. 30	5,000
관음사	신막심	4. 22	10,000
기로원	상지화	4. 20	10,000
기로원	불명심	4. 20	10,000
기로원	법장화	4. 20	10,000
기로원	대자행	4. 20	10,000
기로원	대 관	4. 20	10,000
기로원	충지화	4. 20	10,000
기로원	수중원	4. 20	10,000
기로원	사홍화	4. 20	10,000
기로원	법수원	4. 20	10,000
기로원	법지원	4. 20	10,000
기로원	밀공정	4. 22	10,000
단음사	법연지	4. 1	5,000

단음사	법연지	4. 29	5,000
단향사	이재은	4. 1	10,000
단향사	행원심	4. 1	10,000
단향사	김경남	4. 7	10,000
만보사	유복근	4. 20	30,000
만보사	민순분	4. 27	10,000
만보사	이종구	4. 27	5,000
만보사	지 정	4. 27	10,000
만보사	승호제	4. 27	10,000
무명찌	무명찌	4. 1	10,000
무명찌	무명찌	4. 23	10,000
밀인사	정정희	4. 1	5,000
밀인사	원 당	4. 6	10,000
밀인사	묘심해	4. 6	10,000
밀인사	이재호	4. 7	10,000
밀인사	이혜성	4. 22	20,000
밀인사	이연수	4. 28	10,000
밀인사	정정희	4. 28	5,000
밀인사	이재호	4. 30	10,000
백월사	박인철	4. 13	5,000
백월사	박인국	4. 13	5,000
백월사	류승태	4. 15	10,000

백월사	이갑진	4. 27	10,000
법천사	김정숙	4. 2	5,000
법천사	시 정	4. 20	10,000
법천사	원만원	4. 20	10,000
법천사	박말조	4. 20	5,000
법향사	강길자	4. 8	20,000
벽룡사	이희숙	4. 6	10,000
삼밀사	김기영	4. 1	10,000
삼밀사	원 승	4. 2	10,000
삼밀사	인법계	4. 2	10,000
삼밀사	원 승	4. 24	10,000
삼밀사	인법계	4. 24	10,000
삼밀사	원각정	4. 28	10,000
선립사	정복지	4. 24	10,000
선립사	황귀석	4. 24	10,000
선립사	심지장	4. 24	10,000
성화사	유만배	4. 13	50,000
수인사	공정원	4. 1	16,000
수인사	장영택	4. 7	30,000
수인사	김봉기	4. 24	10,000
시법사	환수원	4. 27	10,000
시법사	전여행	4. 28	10,000

실보사	이순옥	4. 27	5,000
실지사	송우섭	4. 2	5,000
실지사	정경자	4. 24	5,000
실지사	최남재	4. 30	5,000
실지사	최용재	4. 30	5,000
운천사	박보경	4. 2	20,000
운천사	반야화	4. 21	20,000
자석사	이관도	4. 11	10,000
자석사	위배들	4. 16	67,000
정각사	변순개	4. 8	5,000
정각사	구정희	4. 15	20,000
정각사	강정익	4. 15	40,000
정각사	김문수	4. 17	10,000
정각사	박수빈	4. 21	10,000
정각사	조현필	4. 24	5,000
정각사	윤선자	4. 28	10,000
정심사	박옥란	4. 1	20,000
정심사	오윤보	4. 21	5,000
지인사	허성동	4. 17	20,000
총지사	이인성	4. 1	30,000
총지사	이수영	4. 9	100,000
총지사	최해선	4. 20	20,000

총지사	선도원	4. 23	10,000
총지사	최순전	4. 24	20,000
총지사	홍지희	4.	10,000
통리원	지 정	4. 20	20,000
해정사	박종석	4. 9	20,000
해정사	최영례	4. 14	10,000
해정사	대지화	4. 21	10,000
해정사	해원정	4. 23	10,000
해정사	서 령	4. 23	10,000
해정사	오혜민	4. 24	10,000
화음사	강승훈	4. 21	10,000
이숙남	이숙남	4. 14	30,000
김병희	김병희	4. 15	20,000
윤 찬	윤 찬	4. 20	10,000
정인순	정인순	4. 22	10,000
안효정	안효정	4. 27	20,000
임동수	임동수	4. 28	20,000
정인여	정인여	4. 30	7,000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로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당신을 매어놓은 말뚝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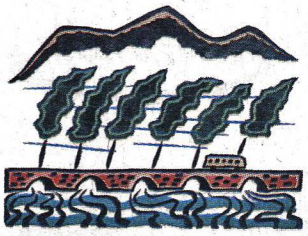


무시한 힘을 지닌 코끼리가 아주 작은 말뚝에 묶여 안전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든든한 쇠말뚝에 묶여서 자랍니다. 아무리 기운을 써서 이 쇠말뚝을 뽑으려 해도 어리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몸이 커지고 힘이 세져도 그리고 약한 나무말뚝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코끼리는 달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구속하는 말뚝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매어놓은 말뚝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정우(군승법사)

갖고 싶다 해서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거나 갖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능력에 상관없이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갖고 싶어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은 가저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서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도 안젠가는 나빠진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 묘원(한국 위빠사나 선원장)

깨어있음



깨달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리(菩提)가 있는 것이다.

나를 아는 일은 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아는 것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부처는 열린 중생이요 중생은 닫힌 부처이다.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만화

~전수경 편 제39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지혜롭게 중도(中道)를 지켜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中道)를 지켜라.

재물(財物)을 오물(汚物)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時)와 처지(處地)를 살필 줄 알고 부귀(富貴)와 쇠망(衰亡)이 교차(交叉)함을 알라

〈잡보장경〉권3 '용왕계연' 중에서



금산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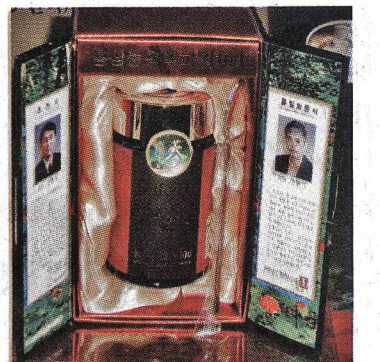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메이저 총지중

지상설법



선도원

(총지사 주교)

◆ 탄생계에 담긴 뜻

2500여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탄생 직후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마다 땅에서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아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

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담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오직 나 혼자만이 존귀하니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그 한 말씀에 대자비가 녹아 있고 평등의 노래가 깔려 있습니다. 이 계승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누구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각적 존재 첫째는 모든 중생은 그 누구든지 자신 속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자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했으며, 혹은 사람 사람마다 모두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人人箇箇本有佛性)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도 구애 받지 않는 자각적 존재로서 자기 완결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본래의 존재성, 부처로 깨어날 수 있는 능력, 누구나 행복하게 노닐 수 있는 근원적 실상, 권력자에 있어서 더 하지도 않고 천한 자에 있어서 덜 하지도 않는 구김살 없는 무한한 가치. 그것을 경전에서는 여래장·법성·진여·공·일심이라고 했으며, 옛 조사 스님들은 주인공·한 물건이라 했습니다. 비유하여 표현하여 '허공' 또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지도 있고 양반도 있고 군림하는 자도 있고 군림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마음은 외형적 모습에 관계없이 평등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육도중생이 모두다 부처로 깨달을 불성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수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성이요 마음이며 주인공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일체중생에게 평등하게 존재하여 번민과 갈등이 없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고통받고 고통을 치유할 자가 없는 그곳 그 자리...

▶ 행복의 이정표-대자비

두 번째 탄생의 의미는 대자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그 고통에서 해탈케 하려고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삼계개고 아담안지'가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오기만 하면 행복의 이정표가 되어 주고 고뇌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이타(利他)의 의미입니다. 나는 위없는 스승(無上師)으로서 그대 중생들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여 줄 수 있기에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는 의미입니다. 일체중생은 본래 부처로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음을 일깨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을 자가 그 누구이겠습니까? 고통을 주는 자도, 고통을 받을 자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통의 실체가 모두 공하여 해탈, 자유, 평등 그 자체임을 일깨워주려고 이 땅에 오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성자가 그랬던가요? 죽음의 신은 바다 밑에 숨어도 찾아오고 깊은 산 속에 숨어도 찾아온다고...

우리 인생살이의 극점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났으면 반드시 헤어지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뿌리째 뽑아내고 영원한 행복과 결핍 없는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 일체 중생은 평등하다

세 번째 부처님 탄생의 의미는 평등입니다. 이 평등의 의미는 첫 번째 탄생의 의미와 관련이 있지만, 평등만을 부각하여 강조해 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석가세존 자신만의 외침이 아니라 일체중생 모두가 평등하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

입니다.

우리는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모든 모순과 사회의 병리현상을 잠재우고 부처님의 평등의 웃음으로 같이입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집착과 편견을 잠재우고 대승적 사고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곧 평등의 절대적 사상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과 비기득권, 내 편과 네 편이 없는 본래 평등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오늘의 이 사회는 평등과 자유와 행복으로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평등의 무한 행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놓아버리면 그 평등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공의 세계로 걸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절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있어서 더하지도 않고, 중생에게 있어서 덜하지도 않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이 평등의 메시지를 안고 이 땅에 오심을 진실로 축복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 부처님의 탄생

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사카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네팔 타라이 지방에 카필라라는 조그마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였다. 수도다 나왕(淨飯王)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이 태평한 세월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웃에 코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 침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고,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 걱정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야 왕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여섯 개의 이를 가진 눈이 부시도록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이때부터 왕비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그 태몽은 아들을 낳게 될 꿈이라 하여 사람들은 훌륭한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산달이 가까워지자 마야왕비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폴리성으로 길을 떠났다. 늦은 봄 화창한 날씨가였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 폴리의 경계에 이르렀다. 저 멀리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흰 눈을 이고 우뚝우뚝 장엄하게 솟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가까이에는 평화로운 룸비니 동산이 있

었다. 동산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다투어 피었고, 못새들은 왕비 일행을 축하하는 듯 지저귀며 날았다. 룸비니 동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일행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마침 가까운 곳에 무우수(無憂樹)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일행은 곧 나무 아래에 회장을 쳐 산실을 마련했다. 이때 태어난 왕자가 뒷날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부처가 된 후 무수한 중생을 교화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이전오백여 년 전의 일이다. (佛典)

◇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

부처님께서 사리뿔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토록 간절히 세 번이나 청하니 여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해 말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신남, 신녀 오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가 버렸다. 그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므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 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도 말리지 않으셨다. 이때 부처님이 사리뿔타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남은 대중들은 앞과 가지는 없고 열매뿐이다. 그들처럼 잘난 체하는 사람들로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모든 여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知見)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여래의 지견을 보여 주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지견에 들어가게

를 켜 연등회(燃燈會)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 안이 이렇게 북적거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생각했다. "프라세나짓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해야겠는데."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동전 두 닢을 빌어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보고 기름을 구해 어디 쓰려느냐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빌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 부처님께 공양할까 합니다." 주인은 여인의 말에 감동하여 기름을 조금이나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부처님께 서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빌기를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어 지이다' 라고 하였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않을 것이므로 아난다는 손으로 불을 끄려 하였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가사자락으로, 또는 부처로 끄려 했으나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아난다에게 말씀 하셨다. "아난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成佛)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프라세나짓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부처님, 저는 석 달 동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켜왔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의 *수기(授記)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도란 그 뜻이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깨치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천의 보시로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보시하여 복을 짓고, 좋은 벼를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뒷날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오."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根本設一切有部毘奈耶藥事12)

진리의 여울

서는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너에게 말하겠으니 자세히 들어라.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시절 인연이 닿아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사리뿔타, 너는 여래의 말을 믿어라. 여래의 말은 결코 허황하지 않다. 여래가 말하는 법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래는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여래끼리만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모든 여래는 오로지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래는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法華經 方便品)

◇ 가난한 여인의 등불

사뵈타(舍衛城)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온 성 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프라세나짓왕은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고 오늘 밤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만 보 사

주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백 월 사

기로스승: 사 홍 화

주교: 정사 범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법 황 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정사 서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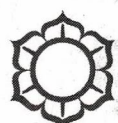
전 수 혜원정

☎ (043)256-3813

흥 국 사

주교: 정사 지 정

☎ (063)224-4358



불 교 충 지 중

수행의 길에서**좋은 도반(道伴)은
수행의 전부이다****자 인 행 부산 정각사**

“대덕이시여, 좋은 스승(善知識), 좋은 벗(善伴黨), 좋은 제자(善隨徒)를 갖는 것은, 이 성스러운 도(道)를 수행(修行)함에 있어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아난이여, 그런 말 하지 마라. 좋은 선배, 좋은 벗, 좋은 후배가 있다는 것은 이 성스러운 도를 수행함에 있어 전부이다.” 라고 대답했다.

며칠 전 저녁불공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를 부리며 차 한 잔 곁에 두고 펼친 책에서 읽은 아함경에 속한 상응부경전이라고 출처를 밝힌 한 구절이다.

읽을 때에는 별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덮고 한참 후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유독 아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 부분만 지푸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서원당에 앉아 불공을 하거나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치 화두(話頭)처럼 “도를 수행함에 있어 좋은 도반(道伴)은 도의 전부이다.” 라는 구절이 입에서 맴돈다.

여기서 부처님이 대답하신 도반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수행을 같이하는 동료? 스승? 아니면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마음 맞는 친구? 아마도 지금 나열한 모든 단어들을 통합하는 의미일 것이라고 유추해보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와 닿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같이 수행하는 좋은 동료 정도로 이해한다면 좋은 도반의 가치를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그런 평면적이고도 비근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도반은 도의 전부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하였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난의 질문에 부처님이 대답하신 성스러운 도(道)! 지금의 나는 모른다. 아니 어쩌면 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아난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도반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도반과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좋은 도반은 내주위에 많다. 내가 힘들어 할 때 멀리서도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날려주는 도반, 항상 씩씩한 웃음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도반, 때로는 약간의 투정과 어리광으로 내 등에 기대는 도반, 가끔씩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고는 다시 온다는 말도 없이 가버리는 도반, 멀리 있어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그리운 도반,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고 아주 가끔 만나도 조금도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않는 도반, 등등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꼽아도 모자랄 만큼 많다. 물론 그중에서도 나를 좋은 도반이라 생각한다는 확신은 없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도반은 내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도반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도를 이루지 못하고, 도를 이루려는 의지조차 부족한 여러력은 나의 무명(無明) 때문이라고 꾸중해도 할 말 없다.

항상 그 도반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나는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

불교설화 <33>**눈길에 찍힌 발자국**

스님은 공양을 마치고 늘 뒤란으로 돌아갔다.

암자 뒤란에는 산죽들이 파랗게 울타리를 치고 있었고, 굴뚝만한 돌배나무 한 그루가 암자 지붕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있었다. 그리고 주춧돌처럼 생긴 반반한 돌은 돌배나무 발 밑에 놓여 있었다.

스님은 돌 위에 밭덩이를 두어 손가락 놓으며 중얼거렸다.

“관세음보살”

그러자 산죽 숲속에서 얼굴을 빼죽 내밀고 있던 산토끼가 스님에게 눈을 맞춰주었다. 스님이 가고 나자, 산토끼는 살금살금 다가와 밭덩이를 먹었다. 스님은 그 산토끼를 ‘화염이’라고 불렀다. 돌 위에 밭덩이를 놓고 나서는, ‘화염아, 공양 시간이야.’ 하고 산죽 숲을 바라보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산토끼는 그 밭덩이를 다 먹은 적이 없었다.

언제나 조금씩 남겨두어 자기보다 더 작은 생명들이 낚아와 먹게 하였다. 못 생명과 나뉘 먹을 줄 아는 것을 보면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 산토끼였다. 그래서 스님은 그 잿빛 산토끼를 암자에서 함께 수행하는 친구로 여겼다.

“참 기특하기도 하지. 너를 보면 인간이라는 내가 부끄럽구나.”

산토끼가 가고 나면 흩어진 밭알을 쪼기 위해 산새들이 날아오곤 하였던 것이다. 이따금 재를 지내고 나서 과일 조각이라도 특별 음식으로 나오면 날이면 다람쥐, 청설모 등도 돌 주위로 다가왔다.

화염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암자를 찾아왔다. 스님 역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화염이에게 밭덩이를 공양하였다. 그러던 겨울 어느날이었다.

폭설이 며칠째 내리고 있었다. 눈이 땀먼저 한 일은 산길을 지워 없애버린 것이었다. 돌배나무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산짐승들의 왕래도 끊어지게 하였다.

암자는 적막해지고 스님의 걱정만 큼 눈이 쌓여만 갈 뿐이었다. 숨소리처럼 가늘게 들려오는 기척이 있다면 산죽이 내는 소리가 전부였다.

산죽은 가지가 휘어지면서 눈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털어내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목은 올빼미가 날갯짓하듯 ‘푸드득 푸드득’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스님은 암자에서만 하루 종일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망연자실 퍼붓는 눈을 바라보았다. 뚫린 길이라곤 우물로 가는 길과 화살길 가는 몇 걸음 길이 고작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 있었다. 저 산 밑 마을까지의 산길은 이미 눈이불에 덮여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후에는 양식이 바닥나 쪼쪼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다간 봄이 될 때까지 암자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겠구먼. 화염이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굉장한 눈이군. 이럴 줄 알았으면 겨울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둘걸. 지금 금강이는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을까.”

금강이는 스님과 암자에서 함께 살다가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큰 절에 내려가 있는, 올해 열네 살 난 사미승이었다. 금강이는 큰 절로 온 편지나 일정한 때마다 양식을 가져오는 어린 스님이었다. 스님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에도 잠을 못 이루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몸을 뒤제는 산죽처럼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하곤 하였다. 금강이 또한 암자에 갇혀 있을 스님 생각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양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산길이 숨어버렸으므로 달리 방법이 없었다. 금강이는 공양할 때마다 손가락이 목탁처럼 무거웠다. 굵고 있을 스님이 떠올라 발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젊은 스

님들이 그런 금강이의 마음을 다 독려려 주었지만 금강이는 퍼붓는 눈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암자에 계신 스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스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름마다 제가 양식을 가지고 올라간 것을.”

금강이는 너무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길잡이 스님이 알뜰기도 하였다.

“눈이 내려서 그런 걸 어떡하나. 아마도 스님께서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암자 부엌의 웅기에 저장해 둔 양식이 있을 거다.”

“그래두 전 암자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러니 길을 잘 아는 스님이 안내를 해주면 좋겠어요.”

“늘 네 혼자서 다니지 않았느냐.”

“제가 다니던 지름길은 위험해요. 낭떠러지 길에다 가파른 계곡을 몇 개나 건너야 하거든요.”

금강이가 울상을 짓자, 길잡이 스님이 합장을 하며 말했다.

“그럼, 좀 돌아가는 길이는 하지만 길잡이 스님을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래 주세요, 스님.”

마침내 금강이는 눈이 그친 다음날 길잡이 스님을 소개받았다. 길잡이 스님은 눈 덮인 산길이라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길이니 함께 가보자고 나섰다.

“좀 먼길이지만 나를 따라 오너라.”

금강이는 양식을 짊어지고 길잡이 스님처럼 신발에 감발을 쳤다. 찌리나무를 짊어 구부려 만든 감발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차는 덧바신 모양이었다. 보기도 아주 둔하게 생겨 걸음을 더디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쌍인 눈에 잘 빠지지 않고 성큼성큼 걷게 해 주었다. 그런데 길잡이 스님은 큰 절을 빠져 나와 산길 초입에 들어서서는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엄청 내렸구나. 나무들이 저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으니.”

“거 보세요.”

길잡이 스님이 소개하겠다는 산길 부근도 눈이 차올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잘 안되었다.

“어디다가 발을 내딛어야 할지 막막하구나.”

길잡이 스님이 당황해하자, 금강이가 입을 뻐죽 내밀었다.

“거 보세요. 큰 절로 되돌아갈 수밖에요.”

“아니다. 지금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망을 들어주실 거다. 자, 합장하고 기도를 하거라.”

금강이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를 하였다.

“관세음보살님, 암자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때 합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길잡이 스님이 소리쳤다.

“산짐승 발자국이다.”

산짐승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선명한 발자국이었다. 어린 노루 발자국 같기도 하고, 사슴 발자국 같기도 하고, 새끼 멧돼지 발자국 같기도 하였다. 흰 종이 위에 도장을 찍듯 꼭꼭 찍혀져 있었다.

“봐라, 이 산짐승 발자국을 어서 따라가 보자.”

은 산이 눈에 덮여 버리자, 먹이를 구하려 큰 절까지 내려온 산짐승이 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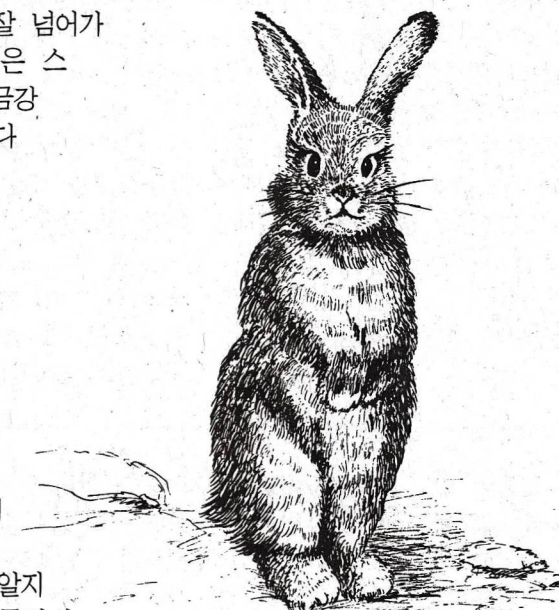
“산짐승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산짐승 굴이 나오겠조.”

“아니다. 나는 안다. 이런 날은 먹이를 구하러 분명히 저 산속의 암자 부근도 서성거렸을 거다.”

“우리 스님이 계신 암자 말입니까.”

“그렇다.”

길잡이 스님과 금강이는 산짐승이 찍어



삽화 : 정운지

놓은 발자국을 따라서 산을 올라갔다. 산등성이를 하나 넘은 뒤, 길잡이 스님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발자국을 잘 보아라. 내가 찾던 길이다.”

눈에 익은 수백 살 된 느티나무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처럼 쉬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르자 곰바위가 보였고, 능선을 넘어서자마자 처녀바위가 흰 눈을 먼 사포처럼 쓰고 있었다. 이제 길잡이 스님은 암자까지 찾아가는 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두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큰 절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산짐승 발자국도 계속 찍혀져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 쯤 눈길을 걸었을까.

암자 추녀 끝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가 금강이를 먼저 맞이해주었다. 그제야 길잡이 스님이 잠시 쉬어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암자 스님이 보고 싶은 금강이는 마음이 급했다. 산짐승 발자국은 암자 부근에서 끝이 나 있었다.

암자는 조용하였다. 스님은 참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빈방에서 지그시 눈을 감은채 참선에 들면 몇 시간이나 돌부처처럼 꼼짝 않는 것이었다.

암자 창호에 비친 햇살은 눈만큼이나 하얗게 빛났다. 금강이는 암자의 스님을 작은 소리로 불렀다.

“스님, 스님”

그때 길잡이 스님이 금강이의 팔을 잡아 끌어 말했다.

“쉴, 조용히 하거라. 금강아, 저 산토끼가 바로.”

산토끼 한 마리가 암자 뒤란에서 나타나 우물 쪽으로 경중경중 사라지고 있었다. 화염이었다.

암자 스님에게 날마다 공양을 받았던 잿빛 산토끼였다. 금강이와 길잡이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치뜨면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관세음보살’을 외었다.

산토끼의 엉덩이마저 눈에 묻히자 소나무 잔가지에 얹혀 있던 눈썹이 후두둑 졌다. 금강이와 길잡이 스님에게 응답을 보내듯 낙화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길잡이 스님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금강아, 저 산토끼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한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그러고 보니 그들을 암자까지 데리고 온 발자국은 저 산토끼 발자국이 분명하였다. 화염이가 찍어놓은 발자국은 마치 꽃잎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았다. 그제야 금강이는 손바닥을 만들어 소리쳤다.

“화염아, 화염아!”

금강이의 외침은 메아리 없이 텅 빈 산으로 퍼져나갔다.

메아리도 눈 덮인 산길을 잃어버린 듯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또다시 떨어지는 눈꽃이 금강이의 선한 눈망울에 어리었다.

“작은 생명이 자연의 일부라면, 자연은 이렇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뭇의 실제와 현현하는 순리의 모습을...”

- 심일화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전 화 사**

주교 :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4)761-2466

개 천 사

주교 : 정사 경 원
☎ (053)425-7910

국 광 사

주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단 음 사

주교 :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 립 사

기로스승 보 원
주교 :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수 계 사

기로스승 혜 산
주교 : 전수 안주화
☎ (054)745-5207

수 인 사

주교 : 정사 지 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승 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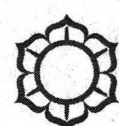
기로스승 원 봉
기로스승 지선행
☎ (054)746-7434

제 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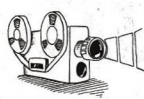
주교 : 전수 법상인
☎ (053)743-9812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불 교 충 지 중



영화에서 불교보기 ④ / 구도와 코미디, 다른 길을 가는 두 영화

<달마야, 서울 가자>와 <신과 함께 가라>



육상호 감독이 만든 <달마야, 서울 가자>(2004, 한국)와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2003, 폴란드 감독)에는 모두 수도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산사나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가기에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두 영화는 이들 순진한 수도자들의 바깥세상 이야기입니다.

<신과 함께 가라>와 <달마야, 서울 가자>는 겉모습은 참 비슷합니다. 성직자들이 수도원과 절 밖으로 나오면서 낯선 세상과 부딪친다는 설정이 우선 닮았고, 간간히 웃겨준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과 함께 가라>는 종교 영화의 길을 걷고, <달마야, 서울 가자>는 코미디 영화의 범주에 속하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있던 두 영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과 함께 가라>는 제목에서처럼 신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영적 성장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코믹은 수단일 뿐입니다. 반면에 <달마야, 서울 가자>는 웃기는 게 목적이었고 종교는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이 걸은 구도자의 길을 먼저 살펴볼까요. <신과 함께 가라>의 신부님들은 칸도리안 교단 소속인데, 이 교단은 노래를 통한 찬양과 기도를 수행방법으로 삼는 교단으로 오래전에 카톨릭 교단에서 파문당하고 두 개의 수도원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보잘 것 없는 교단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머물고 있는 수도원은 독일에 있는 아우스부르크 수도원입니다. 다른 한 수도원은 이탈리아에 있는데 영화는 세 명의 수사가 독일 수도원을 나와 이탈리아 수도원을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좀 놀아본 벤노 신부님, 그리고 신부인지 농부인지 헷갈리는 요리담당 타실로 신부님, 그리고 아기 때 수도원에 버려져서 세상이라고는 모르는 꽃미남 신부인 아르보 수사는 보리죽과 우유만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통해 신과 하나 되는 순간에 만족하면서 세상과 담 쌓고 살다가 후원자가 끊기면서 모두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자 종단의 규범집을 들고 이탈리아의 수도원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설정 면에서는 <달마야, 서울 가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달마야, 서울 가자>의 스님들이 서울로 상경하게 된 목적은 노스님의 유품을 서울 무심사에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골 절 스님들이 마차에 자는 사람 코도 베어 간다는 살벌한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번 상경의 길 대장은 청명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자기에게든 남에게든 좀 엄격한 인상을 줍니다. 한마디로 스님계의 범생이지요. 그리고 현각스님, 이 스님은 <신과 함께 가라>의 타실로 수사처럼 몸을 쓰는 일을 주로 하는 팔팔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대봉스님이라고 묵언 수행하는 스님인데, 묵언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마야, 서울 가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캐릭터가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산사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수행자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오면서 이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달마야, 서울 가자>에서 스님들은 서울에 올라와 큰 스님의 유품을 전해줘야 할 사찰인 무심사가 빗 때문에 건달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걸 알아채고는 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스님들이 절을 되찾기 위해 술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걸쭉하게 부르고 그리고 결국은 복권으로 단 3백억을 통해 절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님은 조금도 스님답지 못했습니다. 웃만 승복을 입었을 뿐이지 일반인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건달들과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이 영화에서 수행자의 삶을 느끼는 건 불가능했

습니다.

반면에 <신과 함께 가라>의 신부님들에게서는 그들 앞에 놓인 세상의 삶이 수행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고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에서 수행자의 삶을 느끼게 했으며 신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신부님은 농부스타일의 타실로 수사입니다. 이탈리아 가는 길에 고향에 들린 그는 다 늙은 엄마가 혼자서 많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자 혈육의 정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행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자신은 엄마 일을 좀 더 거들어주고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타실로가 엄마 때문에 수행자를 포기하는구나 하고 낙담했는데 나중에 타실로는 엄마에 대한 연민이나 정보보다 신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하고 동료들을 찾아옵니다. 신과 함께 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애정임을, 즉 혈육의 정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에물은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은 지적 욕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벤노 수사는 이탈리아 가는 길에 신학교 동기를 만나고, 동기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신학교에 데려가 회귀 약보를 보여주면서 신학교에서 함께 살라고 하자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진짜 신이 없습니다. 미사도 드리지 않고 교장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오직 물질에 대한 숭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실로와 아르보가 명예욕에 빠진 벤노를 구하기 위해 찬양을 하자 그 노랫소리 속에서 벤노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런 걸치레나

명예욕이 아니라 신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신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보입니다. 아르보의 욕망은 앞의 두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강했습니다. 아르보 수사는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만 자랐기에 여자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와 키아라라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애욕의 상징인 여자와 신이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지요,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길에서 애욕을 가장 경계하셨는데, 신의 길을 걷는 아르보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르보는 신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길을 갑니다. 즉 신을 버리고 키아라를 선택합니다. 아직 어린 아르보에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선택이고 오히려 이런 결론이 이 영화를 훨씬 완성도 있는 영화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길을 간 아르보가 어느 날 다시 신을 그리워할 거라는 걸. 젊은 어느 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신만큼 안전한 안식처와 행복을 주는 곳은 없기에 언젠가 다시 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그렇다면 웃음의 질과 양 면에서는 두 영화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웃음에 집착했던 <달마야, 서울 가자>가 당연히 더 웃겼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 길을 갔던 <신과 함께 가라>의 웃음이 더 진솔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웃음이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신과 함께 가라> 스타일의 불교영화 한 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영화는 <달마야>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처럼 지나치게 진지한 톤이어서 재미가 없거나 <달마야>시리치처럼 그냥 웃기기 위해 불교에서 소재를 가져온 영화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류 다 극단으로 갔습니다. 종교성을 강조하면 재미가 없고, 재미를 쫓다보면 종교성은 온데 간 데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가라>의 재미와 종교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실력이 한 없이 부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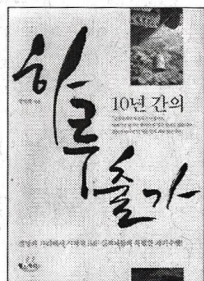
-김은주(자유기고가)



이달의 추천도서

10년 간의 하루 출가

정석희 지음/ 황소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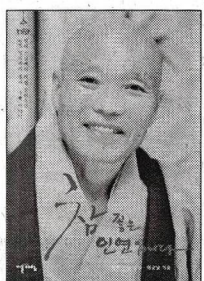


IMF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특별한 자기수행을 기록한 책으로, 저자를 비롯한 '한일 선우회' 동료들이 사찰 순례 여행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삶을 운명하게 가꿔온 10년간의 이야기를 잔잔하고 감동적인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

『10년 간의 하루출가』는 이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해 그동안 일행들에게 들려준 법문에서부터 계절 따라 바뀌는 전국 사찰들의 풍경, 10년을 거치며 서서히 성장해온 그들의 행복한 인생 후반생 등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백금난 지음/ 이른 아침



당대 최고의 율사(律士), 동곡당(東谷堂) 일타(日陀) 스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일가족의 출가와 수행 이야기를 엮은 책. 중생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일타 스님은 깊은 불심 외에도 석가 이래 최대 인원인 41명의 대가족이 모두 출가한 이력으로 유명하다.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매번 거절했던 스님이 『십우도』의 작가 백금난을 만나 솔직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수행 이야기를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는 이처럼 생전의 일타 스님

이 저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책으로, 아름다운 인연의 향기를 몸으로 직접 보여준 일타 큰스님의 삶을 생생한 육성에 근거하여 전한다.

오늘이 전부다

현진 지음/ 클리어마인드



삶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숨 쉬어라, 사랑하라, 수행하라, 수고受苦하라, 떠나라'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책이다. 이 책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명쾌하게 꿰뚫어보고 '오늘이 전부'라는 가르침을 진술하면서 담백한 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희상 스님의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이 수록되어 있어 자칫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 글 읽기에 생기를 더해 주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성전 지음/ 개미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책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월간 [해인] 편집장을 역임하고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하는 순간의 용기를 담고 있다. 언제나 흘러가는 존재인 우리는 항상 행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나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상식③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신 역사상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란 인도의 옛말 '붓다'에서 온 말로 본래는 '깨달은 이' '진리

에 눈뜬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로 번역할 땐 소리나는 대로 '불(佛)' 또는 '불타(佛陀)'라 하기도 했고, 뜻으로 옮겨 '각자(覺者)'라고 쓰기도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가모니'란 부처님의 출신부족인 '사카족' 출신의 성자'란 뜻입니다.

-윤우재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정각사

주교: 정사 대원

전수 정인화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전수 정원

☎ (051)552-7901

덕화사

주교: 정사 법등

전수 인덕심

☎ (051)332-8903

관음사

주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단향사

주교: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교: 전수 묘홍

☎ (051)468-7164

삼밀사

주교: 정사 원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성화사

주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실보사

주교: 정사 우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운천사

주교: 정사 인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자석사

주교: 전수 해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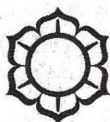
☎ (051)752-1892

화음사

주교: 정사 수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불교충지중

효강 종령예하, 정각사 불교교양대학 특강

“생활불교와 과학적 세계관으로서의 불교”



△효강종령 예하가 특강후 동해중 발전위 회원들, 교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강 종령예하는 4월 23일 부산 정각사를 방문해 “생활불교와 과학적 세계관으로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불교교양대학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정각사 서원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종령예하는 “우리 총지종은 원정님이 창종하신 당시부터 생활 불교를 지향하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도심 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수행방면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맞지 않는 좌선수행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진언 염송을 지향하여 왔다”고 언급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불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야만 진리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과학적 세계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맹목적 신앙만을 강조하여 선진국 사람들과부터 외면당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교양대학 학생들은 “종령 예하의 참신한 설명에 많은 공감을 했다”며 “이날 특강을 계기로 총지종의 교리가 매우 참신한 사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종령님께서 교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언어 사용을 하시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지울스님, 대법원판결에 “같은 선택 할 것”

지난 4월 2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지울스님이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울스님에 대해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울스님은 자신의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www.chorok.org)에 올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거리에서 실행 선고를 내린 판결소식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의 이의는 없다. 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판결을 빌미로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고도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아 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울스님은 “운문사 스님들과 함께 강을 따라 걷는 물길순례를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지난 한달 동안 물길을 걸으며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자연을 삼쳐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의 불자대상 수상자 발표

윤원호 임충빈 김태균 등 3명



윤원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김태균

〈한화이글스 야구선수〉

윤원호(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임충빈(육군참모총장), 김태균(한화 이글스 야구선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윤원호 불자는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10·27법난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및 제정 등 불교계 권익에 커다란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충빈 불자는 오랫동안 군포교에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육군불교총신도회 자문위원으로서 군불교 진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김태균 불자는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스(WBC)에서의 맹활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자선수로서 열심히 수행 활동을 해왔다. ‘불자대상’은 불교를 홍보하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 불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쌍계사, 제14회 야생녹차 문화축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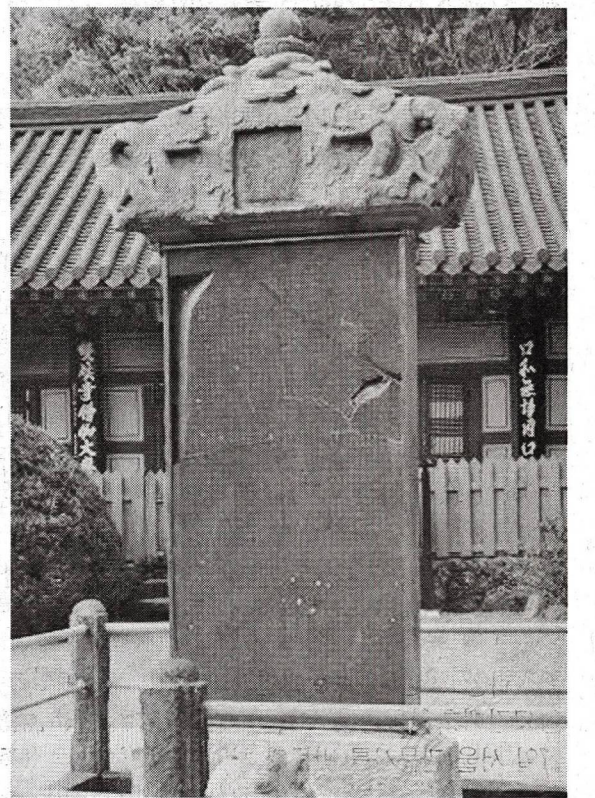
마당극 다맥(茶脈)전수 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상훈스님)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하동군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야생 녹차 문화축제’와 연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쌍계사는 육조 혜능스님의 정상(頂相)을 봉안한 선불교의 전통과, 진감국사·초의선사로 이어져온 다도의 근본 맥, 한국 불교음악(법맥)의 효시를 이룬 발상지로서의 특징을 살려 ‘선, 차, 음’을 주제로 불교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는 쌍계사 초입 화계 차문 화센터 광장에서 산사음악제와 만등헌다(萬燈獻茶)와 동시에 ‘마당놀이 심정전(연출 손진책)’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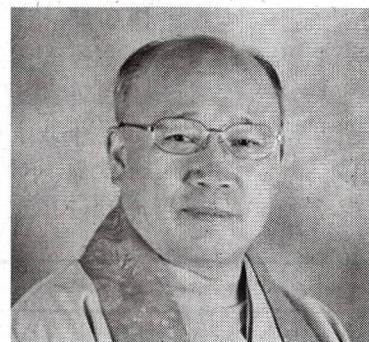
마당놀이에는 인기 연예인 윤문식, 김성녀, 김종업, 정태화 등 마당극의 달인들이 총출동해 지역 시민과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4일과 5일에 걸쳐 (사)한국선다회 주최로 초의, 선기, 일한, 영희 그리고 고산해원(쌍계사 조실), 청랑백운 스님으로 이어지는 ‘다맥전수대법회’와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다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맞춰 참선과 다도 등 사찰 습의와 문화체험을 맛보는 ‘쌍계사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쌍계사 진감국사대공탑비.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에 혜정 정사 당선

“이원 전문성을 살리는 중무행정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주력”



혜정 정사

진각종 28대 통리원장에 회담 학원 이사장 혜정 정사가 당선됐다.

진각종 총의회는 4월 16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총의회의실에서 제362회 정기총의회를 열고, 제28대 통리원장에 혜정 정사를 선출했다.

재적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의회에서 혜정 정사는 1차 투표에서 21표를 획득, 16표를 얻는데 그친 현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진각종의 한 종의회 의원은 “현 통리원장이 진각문화전승관 추진 등 행정적인 부분과 대외적

인 이미지는 크게 개선했지만, 전 통리원장과의 소속 등으로 진각종이 지닌 수행과 교화의 전통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일 수 있다”고 이번 투표 결과를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편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혜정 정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통리원장 소임을 수행하겠다”면서 “진각종은 참회로부터 시작된 종단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중무 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혜정 정사는 또 “진각성종 회담 대중사가 17년동안 정한 교법, 수행, 중무행정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원 전문성을 살리는 중무행정을 펼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이어 “전임 통리원장들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본받고 그 분들이 한 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의 정사, 전수와 진언행자 모든 분들을 위해 참회하

는 마음으로 종단발전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1948년 경북 울릉도 출생으로 1989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윤리교육학 전공)를 수료했다. 혜정 정사는 종단 입문 후 유가, 담주, 밀각심인당 등에서 교화했으며 제6, 7대 종의회 의원 및 총인사서실장, 종헌종법연구위원,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주임정교, 제9대 교육원장, 제5대 진각대학장, 종학연구실장, 재단법인 진각종유지재단 이사, 회담학회장,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제12대 종의회 의원, 유가심인당 주교, 학교법인 회담학원 이사장, 화흥어린이도서관장, 세계 불교도우의회 진각본부 회장 겸 오계파지(buddhist pancasila samadana) 상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통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날 총의회에서는 현 교육원장 경정정사가 37표 중 27표를 얻어 제11대 교육원장에 재임했다.

불자 연예인 강호동 씨, 포교원장 혜총스님 예방

이날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예방한 강 씨는 “요즘 방송업과 가정생활이 너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은덕 때문인 듯 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혜총스님은 최근 득남한 강호동 씨에게 “건강하고 복덕을 구비한 나라의 인재를 키우라”며 “강씨후(姜氏后)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강 씨는 “운동도 방송도 수행도 한결같은 결연



△인기 연예인 강호동 씨가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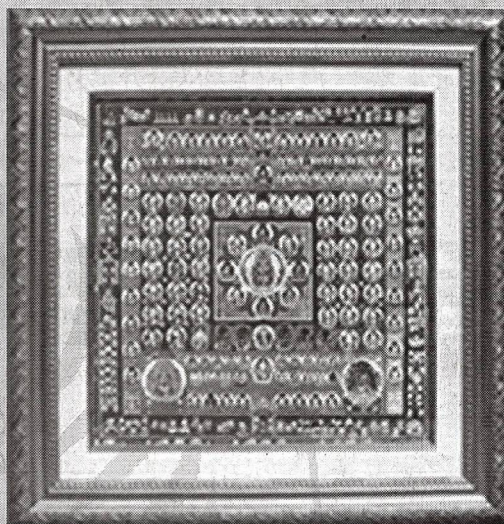
모두 그 분야의 ‘도사’가 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새겨 열심히 살겠습니다. 파파!”이라고 재치있게 화답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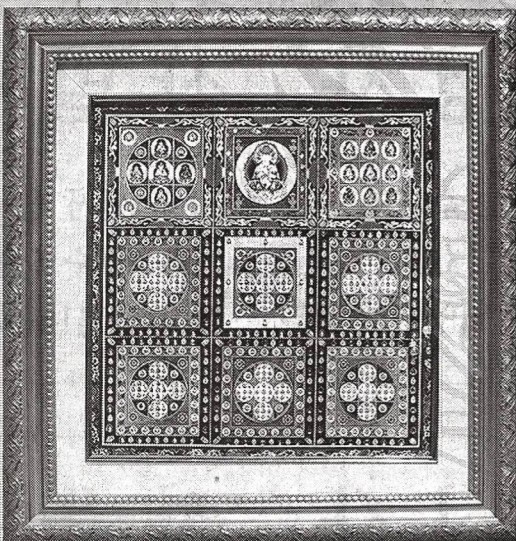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생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청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연경선물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통일의지 담아 불심화합 발원”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장면. 연등축제와 함께 이날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한국종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23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남측과 북측은 공동발원문에서 “원력과 통일실현을의 부축으로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다”며 “나라 일이 잘되려면 민족이 모여앉아 의논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회를 열고 통일의 서원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과 북측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자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해야한다”며 “남북의 불교도들은 한마음으로 통일의 염원을 안고 공동선언 실천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의 고비마다에 한시도 민족과 백성을 떠난 적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이며 그래서 아픈 중생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목탁 대신 호국의 깃발 높이 들고 외세와 맞서며 민족의 문화와 역사, 자산을 창달하고 세세손손 지켜온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들의 원력과 통일실현의 부축으로 남북(북남)간의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어 민족의 단결에 장애가 됨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일찍이 나라 일이 잘 되려면 민족이 모여앉아 함께 의논하라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북과 남)의 사부대중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이 나라 방방곡곡 사찰에

남북공동발원문 전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동시법회》를 가지고 변함없는 통일의지를 담아 삼가 부처님 전에 불심화합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민족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법음이 켜진 지도 1600여년. 기나긴 역

서 일제히 봉축법회를 열고 통일의 서원을 발원합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자면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의 환희를 안겨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변함없이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통일의 염원을 안고 민족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헤쳐며 공동선언 실천행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와 자비 구족하신 부처님!

어둠이 가면 새날이 옵니다.

지금은 비록 화해와 협력의 길에 먹구름이 물려와 시절이 불길하여도 우리 민족의 마음에 깃든 통일번영의 시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마침내 통일의 밝은 세상인 지상정토가 우리 민족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남과 북(북과 남)의 사부대중이 그 정토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갈 것 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민족의 화해협력, 통일번영하는 현세의 지상정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 흐름에 합류한 남과 북(북과 남)의 사부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십시오.

뜻 깊은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어엿한 통일보살로 거듭나는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시오.

걸음걸음 우리들의 앞길에 광대무량한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시오.

군승 결혼금지 종헌개정안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 종하스님 원로의원 선출



◇제33차 조계종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가 군승의 결혼 금지 조항을 삭제한 종헌 개정안을 인준하고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원로의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에서 이송된 ‘군승의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 종헌 개정안은 의원 스님들 간 이견

차가 있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9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원로의원 중 1명은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군승 수급 차질을 우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보완하고 법안에서 기존 군법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 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원로회의는 또 전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원로회의 의장 선출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현 의장인 종산 스님이 의장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산 스님의 임기는

법적으로 2012년 12월 10일까지다. 그러나 2007년 11월 28일 열린 30차 원로회의에서 재선출 될 때 종산 스님의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의원 임기가 만료돼 재선출하면서 종산 스님의 임기를 2009년 4월 1일까지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

문 스님은 “의장 스님이 사표를 내고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었다”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원로의원들이 선거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건채택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스님이 ‘이러한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표를 내지 않겠다’고 말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의장과 임기가 같은 조건으로 선출된 차석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석부의장 선출도 무리라고 판단, 다음으로 미뤘다.

교황청, 부처님 오신날 봉축 메시지 전달

김희중 가톨릭 주교, 천태종 방문해 대신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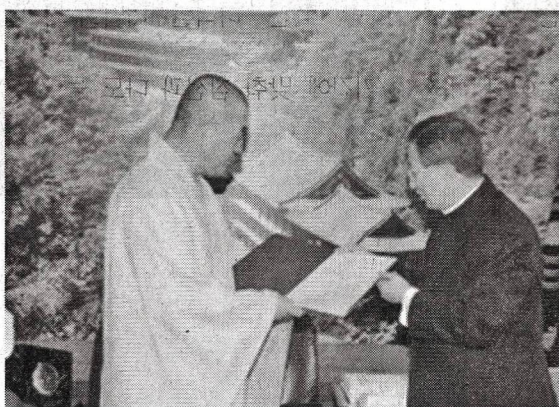
김희중 가톨릭 주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 관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에게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의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화를 통해 가난의 정신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란 제목의 축하메시지는 “가톨릭 교회와 불교간 연대를 확인하며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 위원인 김희중 주교는 지

난 2007년에는 조계종을, 2008년에는 대고종을 각각 방문해 교황청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4월 21일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나눔과 자비, 사랑의 정신이라고 생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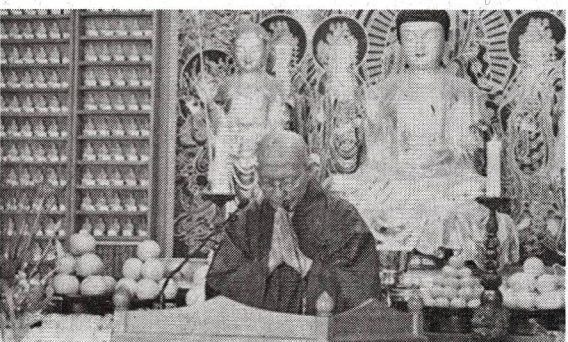
◇김희중 가톨릭 주교가 천태종을 방문,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면서 “그러기에 올해 봉축행사의 주제인 ‘나눔은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스님 “습관적으로 절·교회 다니지 마시길”

길상사 정기법회서 ‘올바른 신행활동’ 강조

“왜 도량 오는지 자문해야 삶 개선될 것”



◇서울 길상사 극락전에서 열린 불철 정기법회에서 법정스님이 법문에 앞서 합장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절에 가는지 깨어 있어야 삶이 개선됩니다. 그게 없으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길상사 전 회주 법정스님은 4월 19일 서울 길상사 극락전에서 열린 불철 정기법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정스님은 ‘꽃’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뗀 뒤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활동에 대해 법문을 이어 나

갔다. 법정스님은 “준비된 꽃과 일만이 계절을 만나서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며 “여러분들은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의 습관적인 신행활동에 대해 지적했다. 스님은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대중들에게 반문하고,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처럼 자신에게 귀의하고 진리에 귀의하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 밖의 것은 다 허상이며 여기에 불교의 참

면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정스님은 승가의 청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스님은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과 진실성에 있으며 불자들이 절을 찾고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청정성 때문”이라며 “길상사가 내건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에 따라 스님들과 불자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불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법정스님은 도량을 찾는 불자들에게 “왜 절에 오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고 주문했다. 깨어있지 않은 채 절에 드나들기만 한다면 삶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스님은 <천수경> 가운데 도량찬(道場讚)에 대해 설명하며 “절에는 어느 절이든 도량신이 있는데 도량신이 날날이 도량에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심이 깊은 분은 도량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가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로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기고

/세계불교포럼 참관기

301221

화령

(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세계불교포럼, 명실상부한 세계 불교 발전 위한 역할 요구”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자들.

제2차 세계불교포럼이 3월 28일 중국 무석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폐막식을 거행하기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6일 무석 도착, 27일 사찰방문, 28일 개막식, 29일 분과토론, 30일 타이베이로 이동, 31일 분과토론, 4월 1일 폐막식, 4월 2일 한국으로 귀국)

나는 여기에 종단대표로서 참가하여 <정보화시대와 불교교육>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중국 종교국에서 관장하는 국제불교대회로서 불교의 홍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는 대회이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막강함을 자랑하는 이외에도 특히 대만과의 화합을 염두에 두면서 동남아시아의 화교권 결집에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도 내재돼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의 중화권 불교계가 연합하여 행사를 거행했다는 것도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과 불교의 대단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측이 개막식과 폐막식 등에서의 축하 등에서 자



▲부처님 탄생을 재현한 청동탑. 하루에 4번씩 연일이 열리며 분수가 뿜어진다.

국과 중화권의 대표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티베트 승려 대표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주최측의 정치적 의도를 국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화권을 단결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볼 때 제2차 세계불교포럼은 포럼 자체의 내용보다는 물량 공세에 치중한 행사였다는 비평을 받더라도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인 저력을 보여주려고 이를 통하여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참가자들은 들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나 중국이라도 이렇게 불교를 진흥하고 불교국으로 우뚝 선다면 불자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다. 세계불교포럼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인적 동원이나 물량 동원이 실로 놀랄만한 규모였다. 대표자들이 무석에서 머문 11개 호텔은 무석의 최상급 호텔이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호텔을 대만과 홍콩 등의 중화권 대표자들을 위한 숙소로 배정하였다. 타이베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최고급 호텔인 원산대만점을 중국대표단의 숙소로 배정하였다.

동원된 차량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타이베이로 이동하는 데에는 4대의 전세기를 이용하였다. 한국대표단은 중국대표단과 함께 3번째 전세기를 탑승하였는데 2층 구조로 된 점보형 항공기였다. 인력 동원면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하여 무석지역의 영어교사, 일어교사 및 한국어 전공자 등이나 공무원 가운데 언어 특기자 등 자원봉사자 2천명을 선발하여 행사도우미로 참가시켰다고 한다.

이런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면 모든 일류호텔을 참가자들만을 위하여 제공하고 행사 참

자에 영어 발표문이 내장된 누락되는 바람에 몹시 당황했지만 겨우겨우 넘겼다.

원래 이 대회는 삼년마다 개최된다고 했으나 사천 대지진과 올림픽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막대한 경비가 든다는 2009년도 제2차 세계불교포럼이 과연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지만 그 의구심은 기우였다. 세계경기의 불황은 중국의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체적으로 많은 소비인구를 가진 중국의 내수시장은 그다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았다.

중국에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중



▲100m 높이의 영산대불

한국불교계, 세계불교교류 기원

총지종 주최 국제재가불교대회 확대 필요

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번에 대회를 개최한 중국의 강소성 무석시는 공업도시로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개최지인 영산 범궁(靈山 梵宮)의 규모와 시설은 우리나라로서는 엄두도 못낼 규모였다. 100미터 높이에 이르는 영산 대불이나 부처님 탄생 모습을 재현한 동탑 등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동행의 범궁에서 펼쳐진 공연은 수천명의 출연진과 270도의 원형 스크린, 움직이는 무대 등이 결합하여 신비경을 자아내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보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변변한 공연장이나 회관 하나 없는 우리 불교계를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일말의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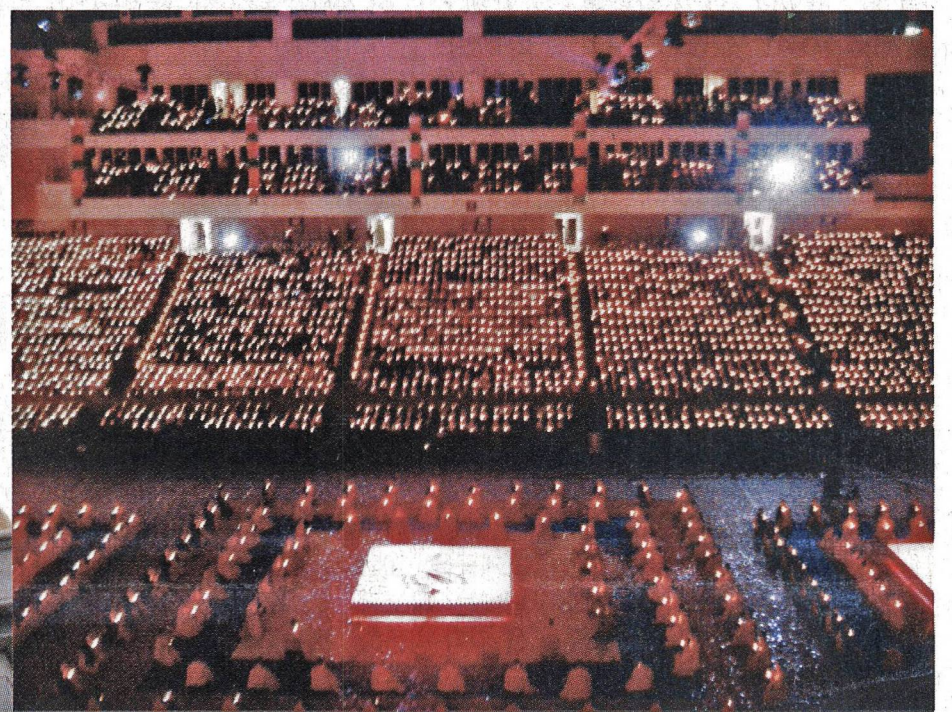
대만의 불교계를 잠깐의 일정 동안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인간불교'를 주창하는 대만 불교계의 규모는 실로 대단했다. 이제 40년의 역사가 채 안되는 불광산사가 대만 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200여소가 넘는 말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불교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700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도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는 우리 한국의 불교는 어쩌다 이리 되었나 싶어 기가 죽기 이전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성운대사(그야말로 '대사'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겠다)의 원력과 실천이 하늘만큼 우러러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타이베이 근처의 불광산 본원들과 불광대학 등을 둘러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 혼자서 불교운동을 일으켜 저렇게 큰 규모로 발전

▲범궁의 동행 천장. 조명으로 갖가지 색깔로 바뀐다.

시킨 것은 도대체 어떤 힘에서 나오는 것일까?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전통 사찰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불교는 200년도 안된 이교도에 밀리고 민중들에게 외면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런 점을 민중들과 불교도에 대한 기본 교육이 소홀하였다고 보고 이 점을 논문에서 강조하였다. 특히 불교지도자들이 기본 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깨달음만 추구하고 앉아서서 그야말로 앉은뱅이가 되어버릴 것이다. 불교가 대중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교지도자들이 일신의 편안함을 누리려 한다면 불교의 앞날은 앞으로도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운대사는 '인간불교'를 주창하며 생활 가운데서 불교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중생들 사이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불법을 펼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종단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불광산과 함께 대만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활동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었다.



▲폐막식 장면.

것이다.

이번 불교포럼을 통하여 가장 감명을 받고 부러웠던 부분은 대만의 탄탄한 불교계와 그들의 활동 상황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국가적으로 불교계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여러 모로 급성장한 중국은 정신적으로도 서구세력의 견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구세력 견제의 대국역할 이외에도 수준 있는 문화대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공자학당(孔子學堂)' 이외에도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 등에서 보여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은 세계불교포럼을 통하여 문화대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 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전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포럼 주최 측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결과 각국의

대표자들은 대단위의 획일적인 이동에 따르는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심하였다. 또한 30일 타이베이 도착, 31일 분과토론, 4월 1일 폐막식 등 짧은 일정은 타이베이 주회 측으로서도 대만불교의 많은 자랑거리를 보여 주기에 부족하였을 것이다. 또한 불광산 소속 분과토론장 이외의 기타 분과토론장인 화법대학, 법교산, 자제공덕회 등에서 한국불교계와의 우호교류를 염두에 둔 인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인적인 성과로는 유럽에서 온 많은 재가불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불교에 대한 이들의 실천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을에 있을 총지종 주관의 <국제재가불교대회(Lay Buddhist Forum)>에 이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은 중국정부의 민족과 종교의 화합이라는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으로 한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불교의 대화합의 잔치로, 기타 국가의 참가자는 그들의 집안잔치에 흥을 돋워 주러 온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중국불교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한국불교계는 기꺼이 동참하고 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주는 아량과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국불교가 진정으로 발전하여 세계불교포럼이 계속해서 중화권 불교의 잔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불교포럼이 되어서 스포츠의 세계적인 잔치인 올림픽에 비유될 수 있도록 발전하여 세계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불교계는 중국불교계에 진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동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행사에 한국불교계가 협력함으로써 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교가 활성화되고 불교계가 힘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불교도들로서는 다행일 것이며 중국의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로의 불교 확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불교계도 스스로의 역량을 확대하여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불교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종단이 해마다 주최하는 국제재가불교대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순수한 불교운동으로서 세계의 뜻있는 불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논론

정보화시대와 불교교육

“불교 발전 위해선 인재불사 중요”

이글은 화령 정사(총지중 중앙 교육원, 철학박사)가 3월 26일부터 4월 2일에 걸쳐 중국 무석시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제2차 세계불교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오늘날 불교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교리는 세계인들, 특히 유일신 종교만 앞선 서구인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각 종교의 비교가 가능한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불교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오히려 포교에 더욱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대형사찰을 건축하고 불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외양적인 것에 치중한 활동을 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중교육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중들에 대한 포교는 아이러니하게도 근세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 선교한 몇 가지 방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근세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먼저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에 치중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가정생활의 주인공인 여성들이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불교교리들, 예를 들면 연기와 공,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삼십칠도품, 육바라밀 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생활에서 불교의 교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실생활과 너무 격차가 나는 관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여기에 따라 행동과 언어를 구사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단순히 불상 앞에서 복이나 건강, 재물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를

생각 좌우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이 만약 그릇된 종교에 세뇌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교회는 이러한 점을 미리 간파하고 어린이들에게 무차별적인 선물공세와 여러 가지 놀이기

많이 있으면 사찰 건립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불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 불공을 드리는 장소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불교도들 또한 반드시 절에 가야만 불교를 배울 수 있다는 과거의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교교육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불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지도자들의 자질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불교지도자가 산속에 은둔하여 불교교리 자체만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대중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불교포교에 뜻을 둔 불교지도자라면 사회의 일반적인 교육도 충실히 받아야 할뿐더러 사회의 일반적 동향에 대해서도 통찰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교는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체계도 지니지 못한 정교하고 심오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가지고 수행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세간의 관념적인 사상이나 철학과 달리 뚜렷한 실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실천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교리적인 부분은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선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깨달음에만 치중하여 교리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에게 불교의 훌륭한 교리를 전파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들은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가 그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외양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불자를 길러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타종교의 거센 도전장을 이겨내고 대중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 대한 불교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불교지도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령(중앙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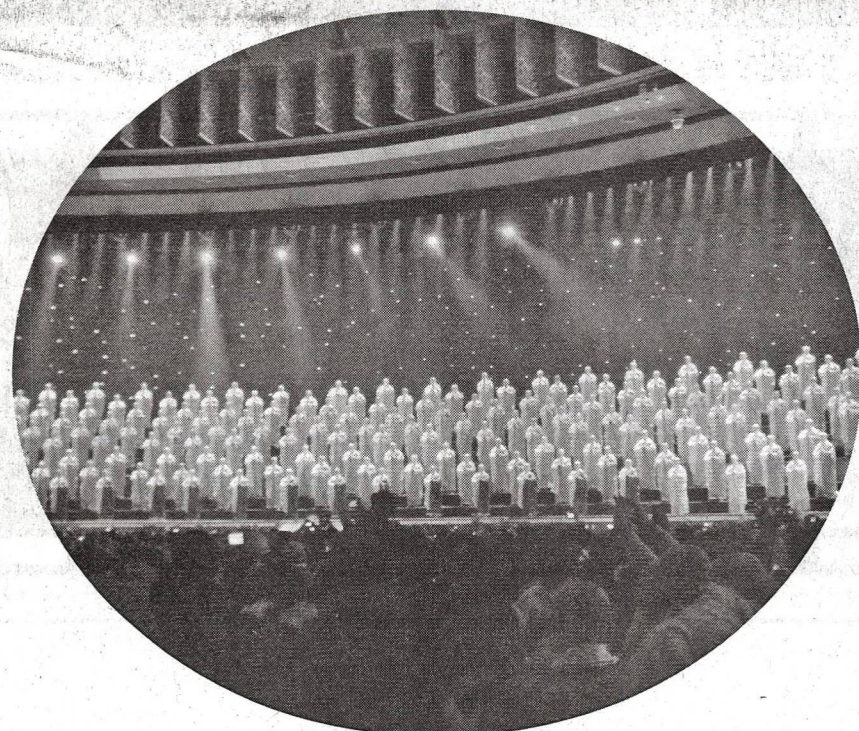
총지중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가 '정보화 시대와 불교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불교적인 마인드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가족들에게 확산될 때에 불교의 기초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린 시절에 각 인연 종교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평

구의 유혹 등으로 이들을 교화로 끌어들이고 그 결과 지금의 방대한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불교에서도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전담하여 불교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청년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사찰에서 어린이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은 앞으로의 불자 양상을 위하여 대단히 유용한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진출했을 때 교육기관을 통한 선교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점에 눈을 돌리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기관 조차도 세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동북아에서 일정한 신도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오랜 불교의 역사를 통하여 대중들의 마음속에 불교적인 정서가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불교계는 사찰을 건립한다는 마음으로 불교교육기관을 세우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불교교육을 제대로 받은 불자들만



제2차 세계불교포럼 개막식 장면

세상사는 이야기

지하철 풍경

내가 평소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늘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모임에 초대 받았을 때나 약속시간에 맞추어야 할 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다. 늦을 이유도 없고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다.

겨울엔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찬 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 아래 차를 타기 위해 이리 저리 뛰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냥 때 맞춰 오는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난 오늘날 지하철을 타고 가서 중요한 일도 해결하고 친구도 만났다. 물론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었다. 내겐 정말 고마운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타

모래가 저절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 텅 빈 손바닥만 남듯이 모두 비어 버리고 빈 껍질만 남는 것을. 그래도 다행히 조금의 모래알은 남아 있겠지. 남아 있는 조금의 모래알에 위안을 삼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빈 껍질 속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지금도 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채워지는 것 보다 빠져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 몸과 마음이 늘 바쁘다.

지하철 안은 하나의 세계이고 작은 우주이다. 그곳엔 여러 사람들의 삶이 배어 있고 기쁨과 슬픔도 녹아 있다.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든다. 혹시 내가 지하세계의 인간이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 속으로 빠져든다. 오래 전에 본 영화 속 지하인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느 날은 지하철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시내 버

“열차안은 작은 우주”

고 내린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사람들을 삼켰다 뱉었다 하는 것 같다. 그는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었다가 곧게 내려놓는 그런 크고 넓은 가슴을 가졌다.

지하철을 타면 앞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며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 어느 집 아들과 딸인가? 그의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엄마 아빠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선 행복한 학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얼마나 격무에 시달렸으면 아침부터 잠에 취해 있을까? 생계를 책임진 그들의 무거운 어깨가 내게도 짓눌려 온다.

갈끔한 정장 차림의 어느 직장인은 모든 업무를 지하철에서 보는 듯, 계속 핸드폰을 울려댄다.

노약자 좌석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 서글퍼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노인들의 깊게 팬 주름 속에 그들의 삶의 애환이 보이는 것 같아 내 마음도 찡찡해진다. 그들의 웃음 속에도 어쩔 수 없이 깊은 허탈감이 묻어 나온다.

인생은 지나고 보면 손에 꼭 움켜쥔

스를 뺏는다. 내가 마치 어느 이야기에 나오는 지하세계를 탈출한 지하 인간이 된 것 같다. 모든 것이 생소한 느낌이다. 햇살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고 예전에 내가 늘 다녔던 길이 너무 많이 변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하다.

지하철은 좋아하지만 지하인간은 싫다. 서둘러 상상 속 세계에서 빠져 나온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많은 경험을 했다. 마치 버스를 처음 탄 사람처럼 창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새삼스럽고 확실히 지나가는 온갖 자동차들과 사람들로 떨미가 나기 시작했다.

역시 지하철은 내게 꼭 맞는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에서의 안내 방송도 내게는 정경과 잠상인들까지도 지하철의 무료함을 잠시 잊게 하는 재미있는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지하철에서의 불편함도 따져보면 많겠지만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지하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곳에 있던 지하철만 연결되면 걱정이 없고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난 지하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지하철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박묘정

알림방

- ▶ 4일부터 10일까지 월초불공이 있습니다.
- ▶ 28일은 하반기 49일불공 일제일입니다.

- ▶ 불교충지중은 4월 24일 BBS 불교방송 IPTV 개국기념 행사장(장충체육관)에 안내 부스를 만들어 중단홍보 책자와 팸플릿을 전시했습니다.
- ▶ 충지사는 교도 '퀴즈풀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응모기한은 6월 7일까지이며 응모지는 서원당에 비치돼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 수지하여 소원성취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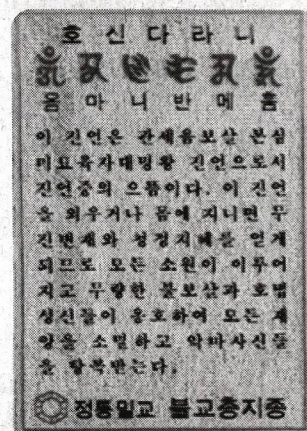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은 진언 중에 으뜸입니다. 육자진언을 외우거나 몸에 지니면 무진번재와 청정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무량한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님들이 옹호하기에 모든 재액들이 소멸되고 내외가 평안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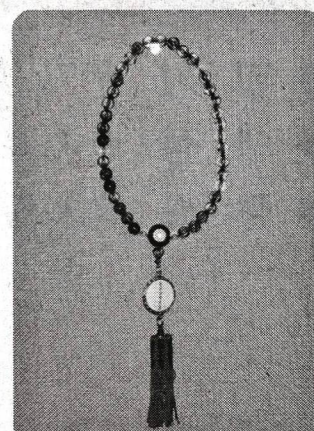
차랑스티커(무료)



금박다라니 ₩ 3,000



금박다라니(뒤편)



차랑용 염주 ₩6,000(자주색, 카키색)



차랑스티커(무료)

불기 2553년 연등축제

“연등물결 부처님 세상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합창단 보살님들



원승 통리원장 종단행렬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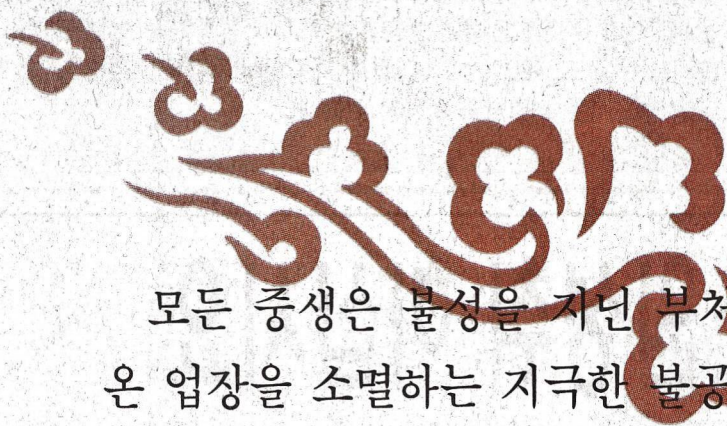
“흥겨운 한마당에 동참했어요”



종단 스승님들 행진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



하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 일 시 : 총기 38년 5월 28일(목) ~ 7월 15일(수) 매일 오전 10시
-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